



## 주요국 기준금리 전망과 시사점

이아름 연구원

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14년 4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행 2.5%로 동결되었으나 향후 국내 경제 상황과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.

-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소비자 심리 위축 우려로 동결됨.
  - 경기지표상 통화정책 변화 요인이 없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.
- 한편 일본 노무라 금융그룹은 국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예상보다 이른 2014년 9월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함.
  - 그동안 일본 노무라 금융그룹은 한국은행이 2014년 12월 기준금리를 2.75%로 2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예상 시점을 9월로 앞당김.

■ 선진국 중 미국과 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반면, 유럽 및 일본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동결 혹은 인하를 언급하며 상반된 경기흐름을 반영하고 있음.

- (미국) 2014년 3월 19일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제로 수준인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되 양적완화종료 6개월 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함.
  - 옐런 의장은 미국의 경제전망 개선으로 채권 매입 프로그램 축소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2015년 말로 예상되었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함.
  - 그러나 실업률 6.5%, 물가상승률 2.5% 미만일 경우에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.
- (유럽) 유럽중앙은행(ECB)은 2014년 4월 기준금리를 현행 0.25%로 동결하였으나 향후 인하 계획을 시사함.
  - 2014년 3월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상승률(CPI)은 2009년 이후 최저치인 0.5%를 유지하고 있는

데 이는 목표치인 2.0%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임.

- (일본) 일본의 경우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.0%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전문가들은 일본은행(BOJ)이 추가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함.
- (영국) 2009년 3월부터 0.5%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온 영란은행(BOE)은 영국의 경제회복세로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함.
  - 마크 카니 BOE 총재는 금리 인상 시점이 2015년 영국 총선 이전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함.
  -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경제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행 0.5%인 영국 기준금리가 2015년부터 인상되기 시작하여 1년 뒤 1.5%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함.

〈표 1〉 세계 주요국 기준금리 현황

구분		최근 변경사항	일시	현재 기준금리	전망
선진국	미국	75bp 인하	2008년 12월 16일	0.00-0.25%	인상
	EU	25bp 인하	2013년 11월 7일	0.25%	동결 또는 인하
	일본	20bp 인하	2008년 12월 19일	0.10%	동결 또는 인하
	영국	50bp 인하	2009년 3월 5일	0.50%	인상
신흥국	중국	31bp 인하	2012년 7월 5일	6.00%	언급 없음
	인도	25bp 인상	2014년 1월 28일	8.00%	동결
	브라질	25bp 인상	2014년 4월 3일	11.00%	인상
	러시아	150bp 인상	2014년 3월 3일	7.00%	인상
우리나라		25bp 인하	2013년 5월 9일	2.50%	인상

자료: 각국 중앙은행, Wall Street Journal(2014. 04. 02).

■ 신흥국의 경우 인도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둔화에 따라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였고 브라질과 러시아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전망함.

- (중국) 중국의 경우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음.
- (인도) 2014년 4월 1일 인도 중앙은행(RBI)은 인도의 물가상승률 둔화로 통화긴축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기준금리를 현행 8.0%로 동결한다고 발표함.
  - RBI는 2014년 1월 기준금리를 7.75%에서 8.0%로 인상하였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통화 가치가 안정화되면서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함.
- (브라질)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완화를 위해 2013년 4월 7.25%에서 11.0%로 기준금리를 9차례 인상하였음.
  - 브라질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4.5%이며 2월 물가상승률은 5.7%를 기록함.

- 톰비니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하지만 공공지출 증가로 물가상승률이 상승할 경우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.
- (러시아)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4년 3월 3일 물가상승으로 인한 루블화 급락을 방어하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종전 5.5%에서 7.0%로 긴급 인상하였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추가 조치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.
  - 2014년 1/4분기 루블화 가치는 달러 대비 8.0% 하락하였고 러시아 주가도 10.0% 이상 하락함.
  - 러시아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를 우려한 외국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.
  - 그러나 일부 외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함.
- 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경우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저금리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.
- 최근 주요국의 금리인상 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는 경기순환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(각국 중앙은행, WSJ 등)